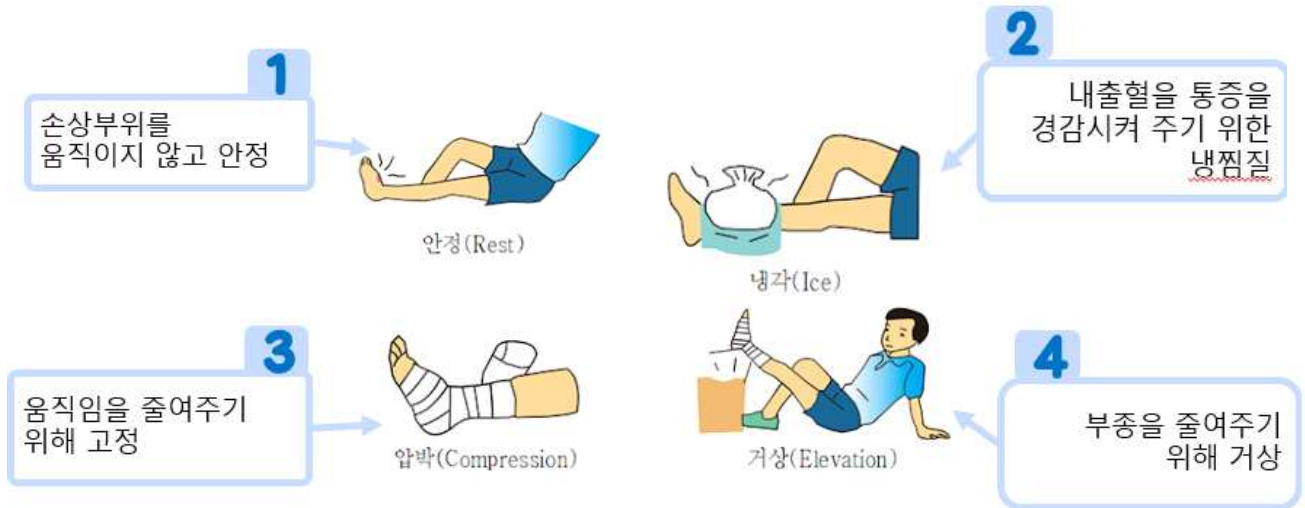


〈응급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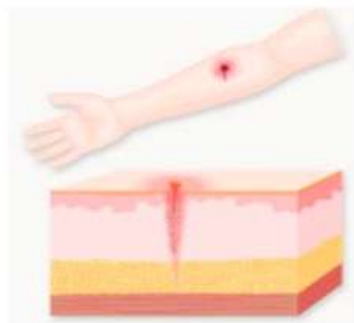
▶ 응급처치란?

: 다친 사람이나 급성질환자에게 사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

▶ 부상 시 응급처치



▶ 외상 시 응급처치



자상 / 찢린상처



절상 / 베인상처



열상 / 찢긴상처



1. 세척

가벼운 상처의 경우 외부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흐르는 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세척한다.

2. 지혈

출혈이 멈출 수 있도록 깨끗한 거즈 혹은 천으로 직접압박 해준다.
최대 10분까지 지혈해주고, 10분 이상 지혈을 해도 출혈이 있다면 병원으로 이송



3. 상처보호

출혈이 멈추었다면 외부감염과 출혈을 막기 위해 밴드 혹은 거즈로 상처를 보호해준다.

▶ 기도폐쇄 응급처치

5회



등 두드리기



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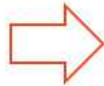


복부 밀어내기
(하임리히 법)

* 기도가 완전히 폐쇄된 경우에는 3~4분 이내 의식을 잃게 됩니다.

* 4~6분이 경과하면 뇌세포의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 심정지 응급처치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본다

119에 신고한다.
(환자 발생 장고, 발생 상황, 발생한 환자 수와 환자의 상태)



호흡확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구급상황(상담)요원
안내에 따라 판별

가슴압박 30회 → 인공호흡 2회
(경우에 따라 인공호흡 생략)

*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에는 시행되지 않은 경우보다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약 4배까지 높아집니다.